QA시스템

聖經硏究 시리즈

65

유다서

기독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유 다 서
Jude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1:20, 21)

ὑμεῖς δέ, ἀγαπητοί, ἐποικοδομοῦντες ἑαυτοὺς τῇ ἁγιωτάτῃ ὑμῶν πίστει,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προσευχόμενοι, ἑαυτοὺς ἐν ἀγάπῃ θεοῦ τηρήσατε,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ὸ ἔλεος τοῦ κυρίου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ζωὴν αἰώνιον.

유다서 차례

유다서 서론 …… 〈11제〉 … 297
제 1 장 영지주의(靈知主義)를 경계하라 …… 〈19제〉 … 300

유다서 특별 자료 차례

제 1 장 〈본장의 요절〉 …… 306

유다서 서론

1. Q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A (1) 본서신의 저자는 예수의 동생인 유다이다(마 13:55; 막 6:1).

(2)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1:1의 진술 때문이다. 즉 '야고보의 형제'라는 자기 소개는 본서신의 저자가 예수의 동생임을 보여 준다.

(3) 일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서신이 예수의 동생 유다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본다.

(4) 첫째, 자기 소개가 너무 모호(模糊)하다.

(5) 둘째, 예수의 동생 유다에 관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6) 세째, 본서신의 내용이 1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이단을 경계하라는 권면이므로 시대적으로 유다와 맞지 않는다.

(7)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본서신의 저자가 자기 소개를 자세히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이미 초대 교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는 저자가 겸손했기 때문에 자세한 소개를 생략했을지도 모른다. 본서신의 내용과 저자가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유다가 장수(長壽)했다고 가정할 때 설명된다.

(8) 또한 1:1의 '야고보'는 일체의 수식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주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틀림없다(행 15:12-21). 그렇다면 본서신의 저자는 주의 동생 유다임이 확실해진다.

2. Q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A (1) 유다는 수신자들의 거주 지역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본서신을 읽게 되기를 희망한 것 같다.

(2) 굳이 수신 대상지를 선정한다면 소아시아나 수리아 지방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본서신의 내용이 위의 지역들이 당면한 영지주의(靈知主義) 및 도덕 폐기론(道德廢棄論)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영지주의는 영(靈)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다고 하는 이원론(二元論)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교훈을 전적으로 배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神人兩性)을 부인했다.

(4) 더우기 이들은 육신의 행위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도덕 폐기론을 낳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서론의 Q10을 참조하라.

3. Q 본서신의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하여 설명하라.

A (1) 유다는 A.D. 70-80년 사이에 순교했다. 그러므로 본서신은 A.D. 8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2) 한편 1:14은 위경(僞經)인 에녹서 1:9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녹서가 쓰여진 시기를 A.D. 30-50년으로 본다면 본서신은 당연히 그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또 본서신의 내용이 1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영지주의를 언급한 점을 보면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대략 A.D. 70년경이다.

(4) 학자에 따라서 본서신이 A.D. 70년의 예루살렘 함락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함락 직전 쓰여졌다고 보는 이도 있다.

(5) 그리고 기록 장소는 유다가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인물이었음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다.

4. Q 본서신의 기록 동기는 무엇인가?

A (1) 본래 유다는 구원에 관한 글을 쓰려고 했다(1:3a).

(2) 그러나 그는 당시에 만연(蔓延)하기 시작한 영지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자 이를 경계할 목적으로 본서신을 쓰게 되었다(1:3b, 4).

(3)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선악 이원론(善惡二元論)은 성경의 근본 교리인 유일신론(唯一神論)에 대립되는 사상이므로 교회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4) 더구나 이원론에서 기인한 도덕 폐기론은 경건과 성화(聖化)를 추구하는 기독교 윤리와 상반되는 위험한 가르침이었다.

5. Q 본서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A (1) 첫째, 특정한 수신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2) 둘째, 모든 문장의 표현이 강경하고 매우 준엄하다. 그것은 본서신이 배도(背道)하는 일을 엄히 꾸짖기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3) 세째, 모세의 시체에 대한 변론(1:9)과 에녹의 예언(1:14, 15)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언급했다.

(4) 네째, 베드로후서처럼 배도하는 자들의 종말을 구약 중에서 인용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본서신과 베드로후서는 내용 전개 방식과 표현법이 많이 닮아 유다가 베드로후서를 참고했거나 베드로가 유다서를 참고했던 것 같다. 1:3-18과 벧후 2:1-18을 비교해 보라.

6. Q 본서신의 정경화(正經化)에 대해 설명하라.

A (1) 본서신은 위경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Q 7 참조).

(2) 특히 유세비우스(Eusebius, A. D. 260-339)와 크리소스톰(Chrysostom, A. D. 354-407), 루터(M. Luther) 등은 본서신이 정경의 권위를 지녔는지를 의심했다.

(3) 그러나 본서신은 가장 오래된 권위의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 A. D. 170)에 들어 있다. 오히려 확실한 정경성을 지닌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등이 이 경전에서 빠져 있다.

(4) 이처럼 본서신이 일찍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유다가 인용한 에녹서가 초대 기독교 안에서 크게 감화력을 끼쳤다는 점이다. 둘째는 당시의 교회가 영지주의의 도전에 계속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본서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다.

(5)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하여 본서신은 A. D. 397년 제 3회 카르타고 회의(Council of Carthago)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확정을 받았다.

7. Q 유다가 위경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잘못인가?

A (1) 당시에는 정경 또는 외경 및 위경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다. 유다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모세의 승천기(The Assumption of Moses)와 에녹서의 내용을 1:9과 1:14, 15에 각각 인용하여 독자들이 자신의 편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의도했을 뿐이다.

(2) 이러한 예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 즉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헬라 사상의 한 반영인 '말씀'(헬. 로고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요 1:1, 14).

(4) 그리고 바울은 기독교의 신(神)을 변증(辨證)하기 위해 이교 시인(異教詩人)의 시귀(詩句)를 인용했고(행 17:28), 딤후 3:8에서는 외경 또는 위경에 자주 나타나는 일화를 사용했다.

(5) 그러므로 유다가 계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위경을 인용한 것은 독자를 위한 배려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8. Q 유다가 위경을 인용한 것이 정당하다면 위경을 신앙에 유익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1) 터툴리안(Tertullian)은 에녹서나 모세의 승천기 등을 유다가 자기 서신에 인용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경으로 보았다. 이처럼 초대 교회에서 외경과 위경의 일부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기독 교회는 외경과 위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위험성을 깨닫게 되었다.

(2) 외경과 위경에는 정경들의 교훈과 상반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왜곡 진술(歪曲陳述)이 많으므로 기독교인의 신앙에 유익이 되기 보다 해로운 경우가 많다.

(3) 그리하여 어거스틴(Augustine)은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에서 유사 정경(외경, 위경 등)을 신랄히 비판했다.

(4) 물론 외경과 위경들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의 보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의 규범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정경 66권은 하나님의 뜻과 신앙 생활의 원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경과 위경을 이용하여 신앙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익하다.

9. Q 본서신의 주제는 무엇인가?

A (1) 본서신의 주제는 '믿음의 도(道)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1:3b)는 것이다.

(2) 본서신에서 '믿음'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초인 동시에 잘못된 교훈으로부터 지켜져야 할 대상으로 설명되고 있다(1:20, 21).

(3) 유다는 본서신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다(1:1, 24).

10. Q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A (1) 인사말 / 1:1, 2

(2)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다 / 1:3, 4

(3) 거짓 교사들을 폭로함 / 1:5-16

① 그들이 당할 운명 / 1:5-7

② 그들을 탄핵함 / 1:8-10

③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 / 1:11-16

(4) 성도들을 향한 교훈 / 1:17-23

(5) 축복 / 1:24, 25

11. Q 본서신의 중심 귀절은 무엇인가?

A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1:20, 21).

제 1 장 영지주의(靈知主義)를 경계하라

단락구분 *1-2* 유다의 자기 소개와 인사말 / *3-4*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위협받던 교회에 편지하다 / *5-7* 거짓 교사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 / *8-10* 거짓 교사들을 탄핵하다 / *11-16* 거짓 교사들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 / *17-19*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을 하다 / *20-23*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다 / *24-25* 송영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5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8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훼방하는도다

9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훼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훼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12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4 아담의 칠 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6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7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도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4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 | 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1. Q 본장의 개요를 설명하라.

A (1) 본서신은 베드로후서와 요한 1서, 2서처럼 영지주의를 경계하기 위해 쓰여졌다(참조, 공동서신 서론).

(2) 따라서 본서신 역시 문체가 매우 강경하다. 우리는 본서신을 읽으면서 본서신의 저자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당시의 성도들을 권면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3) 본서신은 단 한 장(章)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전개가 논리 정연하지도 않고 세련된 표현도 별로 찾아 볼 수 없다.

(4) 하지만 짧은 분량 속에 함축된 메시지는 힘있게 독자들의 가슴에 와닿는다.

(5) 본장의 내용은 인사말(1, 2절)과 본서신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 말(3, 4절)로 시작되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는 권면(5-16절)으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신앙 생활의 자세가 언급된 후(20-23절) 하나님께 돌리는 아름다운 송영(頌榮)이 본서신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24, 25절).

2. Q 유다의 자기 소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절)

A (1) 유다는 예수의 공생애 기간 중 예수가 귀신들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친속들과 함께 예수를 붙들려고 한 적이 있었다(막 3:20-35). 그는 처음에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욕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이다.

(2) 그러나 예수의 부활 후 그는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행 1:13, 14). 이것은 그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유다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초대 교회 내에서 사도들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며, '주의 형제'라고 호칭(呼稱)되었다(고전 9:5).

(4) 이러한 그가 지금은 자신을 '주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5) 이것은 그가 신앙의 연륜(年輪)을 쌓아 가면서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뜻한다. 그는 자기의 형인 야고보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약 4:6).

3. Q 유다는 '성도'를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있는가? (1절)

A (1) 첫째,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다. 바울도 성도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롬 8:30).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사 43:1b).

(2) 둘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라고 하였다. 이는 바울이 정의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과 같다(롬 1:7).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무궁(無窮)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렘 31:3).

(3) 세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 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전(保全)해 달라고 간구하셨다(요 17:11, 15). 하나님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택한 백성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이 보전하신다(살전 5:23).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차 있을 '어린양의 혼인'(계 19:7)에 정결하게 예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1:2).

4. Q 유다는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원했는가? (2절)

Ⓐ (1) 본절은 물론 인사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단의 위험에 부닥친 성도들을 위해 유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난다.

(2) 그는 첫째로, 하나님의 긍휼(矜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했다. 본서신 이외에 '긍휼'이라는 말은 모두 이단을 경계하라는 취지의 서신에서 인사말로 나타난다(딤전 1:2; 딤후 1:2; 요이 1:3). 이것은 성도가 이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려야 함을 보여 준다.

(3) 둘째로,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했다.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함으로써 야기(惹起)된 혼란과 분열이 매우 염려스러웠기에 유다는 평강을 기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혼란이 아니라 교회의 평강을 원하신다(고전 14:33).

(4) 세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영지주의, 이단의 도덕 폐기론을 무찌르는 교회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도 영지주의를 비난한 후에(요일 4:1-6)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했다(요일 4:7-21).

5. Ⓠ 본서신이 말하는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며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3, 4절)

Ⓐ (1) 이단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謹愼)하여 깨어 있으면서 이단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참조, 벧전 5:8, 9).

(2) 또한 이단은 경건치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4, 15, 18절). 물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며 성도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온갖 추악함이 숨겨져 있다(참조, 딤후 3:1-5).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힘쓰며 이단의 간교한 도전에 대항해야 한다(딤전 5:7).

(3) 그리고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色慾)거리로 바꾼다(4, 7, 8, 18절). 오늘날의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음란(淫亂)에 물들어 있는 것이 한 특징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20, 21절).

(4) 마지막으로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4, 15절).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이나 인성(人性)을 부인한다든지 예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일 따위는 이단에 의해 행하여졌다. 우리는 유일한 구세주(행 4:12)요 유일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전 8:6)에 대한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한다.

6. Ⓠ 불순종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5-7절)

Ⓐ (1)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생활 중에 형벌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불신앙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두 죽은 예(例)가 있다(민 32:10-13).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도 하늘에 사무치는 죄 때문에 불로써 심판을 받았다(창 19:1-28).

(2) 배도자(背道者)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더욱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6절).

(3) 우리는 불순종하고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 임한 일들을 거울로 삼아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요이 1:4).

7. Ⓠ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라(6절).

Ⓐ (1) 이것은 벧후 2:4에 제시된 '범죄한 천사들'과 동일한 존재들이다. 정경에는 이들의 범죄 내용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위경 에녹서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2) 에녹서에 제시된 천사들의 범죄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천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역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의 미모에 끌려 영계를 떠나 세상에 내려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등이다.

(3)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박되어 어두운 세계로 던져졌고 그 위에 거친 돌들이 쌓아 올려졌으며 그 심판이 마친 후 풀 수 없는 쇠사슬에 얽매인 채 뜨거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4) 아마도 유다는 이러한 기록에 근거하여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위치해야 할 곳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지적하려 한 것 같다.

(5) 이처럼 유다는 그 당시 교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에녹서의 예를 들어 하나님께 대한 교만과 인간 욕정이 가져다 주는 폐해(弊害)를 가르쳤다.

(6) 이와 같은 유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보다 자신의 이성과 삶의 철학과 부를 더 의뢰하며 모든 윤리 도덕의 범주에서 벗어나 쾌락 지상주의를 목표 삼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된다.

8. Q 유다는 이단에 속한 거짓 교사들을 무엇이라고 규정했는가? (8-10절)

A (1) '꿈꾸는 자'라고 하였다(8절). 이것은 허망(虛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는 표현이다(신 13:1).

(2) '훼방하는 자'라고 하였다(8, 10절). '훼방'은 사단의 전문 사역이다. 예수께서는 성령을 거스려 훼방하는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마 12:31, 32).

(3)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다(10절). 이성 없는 짐승은 본능대로 산다. 정욕과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짐승과 경쟁하며 살다가 덧없이 죽어 간다. 이단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살아가며 결국 짐승처럼 죽는다. 이처럼 진리를 떠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시 49:20).

9. Q 유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훼방하는 무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어떠한 예화를 들었는가? (9절)

A (1) 유다는 위경의 '모세 승천기'에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은 후(참조, 신 34:1-8) 그의 주검을 둘러싸고 사단과 천사장 미가엘이 격론한 대목을 예로 들었다.

(2) 유대의 구전 전승에 의하면 모세의 주검이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의 추앙물이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차지하려던 사단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천사장 미가엘 사이에 치열한 언쟁이 있었다고 한다.

(3) 유다가 본절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미가엘마저 하찮은 사단에게 저주하는 일을 삼가하고 대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에 맡겼는데 아무 가치 없는 거짓 교사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훼방해서는 되겠느냐는 것이다.

(4) 하나님은 인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지 논쟁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참조, 요 4:24). 만약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인간 이성과 철학 아래 두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는 단호히 대처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Q 이단의 거짓 교사들이 가인, 발람, 고라 등과 비교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A (1) 가인은 자기의 동생을 살해한 최초의 살인자이다(창 4:1-15). 유다가 이단자들을 가인에 비교한 것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일 만큼 해로운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2) 한편 발람은 물질에 이끌려 행동한 거짓 선지자의 표본이다(민 22-24장). 그러므로 물욕(物慾)에 눈이 먼 거짓 교사들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3) 더우기 고라는 반역죄로 멸망받은 자이다(민 16, 17장). 이단자들도 고라처럼 교회 내의 지도자들이 가진 정당한 권위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다(8절). 그

러므로 이들을 '고라의 패역(悖逆)을 좇은 자들'이라고 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인'과 추악한 '욕심' 그리고 '반역'을 일삼는 자들은 그 결국이 멸망에 이르고 만다. '살인'과 '욕심'과 '반역'은 한 인격의 몰락 뿐 아니라 온 교회의 건전한 신앙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악한 속성들이다. 자신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속성을 멀리해야 하며 더 나아가 영적 건강을 위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과 건실한 교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엡 6:10-18).

11. Q 유다가 은유적(隱喩的)으로 표현한 이단의 정체를 설명하라(12, 13절).

A (1) 이들은 '애찬(愛餐)의 암초'이다. 곧 보이지 않는 암초가 큰 배를 파선시키듯 비밀리에 교회로 들어와 성도들 사이의 형제애(兄弟愛)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다. 본래 애찬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먹으려는 선한 동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후에는 부자들의 자기 선전용으로 악용되었고, 이단들이 끼어들어 애찬은 폐습이 되어 버렸다.

(2) 이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다. 하나님은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이는 목자(거짓 선지자)를 준엄하게 꾸짖으셨다(겔 34:1-6). 이단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용한 악한 목자들이다(참조, 요 10:10, 12).

(3) 이들은 '바람에 불려 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은 농부들에게 실망만 안겨 줄 뿐이다. 이단의 교사들은 결국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쳐 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공연히 '의로운 태양'(말 4:2)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우기만 한다.

(4) 이들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 15:4-6). 여기서 특별히 '나무의 뿌리가 뽑힌다'는 표현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다(시 52:5; 잠 2:22).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한다.

(5) 이들은 '수치(羞恥)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썰물 때가 되면 해안에는 종종 더러운 쓰레기와 잡초가 쌓인다. 이단자들은 겉으로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나 얼마 못 가 자신들의 추함을 폭로하게 된다.

(6) 이들은 '캄캄한 암흑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처음에는 찬란한 빛을 발하나 끝내 어두움 속에 자취를 감추는 별들은 사단과 그에 속한 악한 천사들을 가리킨다(참조, 사 14:12-15). 위경 에녹서 18:14에도 이와 흡사한 내용이 나온다. 이단자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처럼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혹은 '의(義)의 일군'으로 가장한다(참조, 고후 11:14, 15). 그러나 이들의 기만은 곧 드러나 결국 악한 천사들의 말로를 걷게 된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러한 비유를 사용했다.

12. Q 이단자들은 무엇 때문에 정죄(定罪)를 받는가? (14-16절)

A (1) 먼저 이들은 불경건으로 인해 정죄를 받는다(15절). 본절에서 '경건치 않은'이라는 표현이 4번씩이나 언급된 것은 이들의 품행이 극도로 가증(可憎)스러웠음을 보여 준다.

(2) 또한 이들은 강퍅한 말로 인해 정죄를 받는다(15절). 강퍅한 말; 즉 원망, 불만, 자랑, 아첨의 말은 모두 정죄의 요인이 된다(16절).

(3) 우리는 이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말과 행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딤전 4:12).

13. Q 이단에 현혹(眩惑)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7절)

A (1) 이단의 침투를 예고한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의 교훈에 유의해야 한다(벧후 3:2).

(2)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그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열매 맺는 생활을 한다.

(3) 그러나 성경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좇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단의 희리바람에 날려 가 버린다(시 1:1-4).

14. Q 사도들이 예고한 이단의 속성을 말하라(18, 19절).

A (1)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건치 않은'(헬, 아세베이아)이라는 말은 공동 번역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로 해석할 수도 있다.

(2) 둘째, 이들은 정욕대로 산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에 육에 속해 살며(19절) 성령을 거스린다(갈 5:17). 바울은 정욕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자세히 갈파(喝破)한 바 있다(갈 5:19-21).

(3) 세째, 이들은 기롱(譏弄), 즉 조롱을 일삼는다. 이들은 가현론을 내세워 그리스도를 허깨비로 여기도록 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조롱했다. 또한 자기들처럼 정욕대로 살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을 비웃었다.

(4) 이러한 자들은 히 10:29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된다.

15. Q 유다가 성도들에게 준 교훈을 크게 2가지로 구분하라(20-23절).

A (1) 첫째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20, 21절).

(2)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고전 10:12).

(3) 둘째는, 성도들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22, 23절).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도리이다(롬 15:1).

16. Q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 21절)

A (1) 첫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한다.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가리킨다.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은 성경에 입각한 신앙 생활을 하라는 의미이다(행 20:32; 골 2:7).

(2)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헬라 원문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로 기록되어 있다. 성령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도우신다(롬 8:2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엡 6:18).

(3) 세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공동 번역, Living Bible)는 뜻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며 지키신다(시 121:3-8).

(4) 네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애 3:22, 23). 심지어 영생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딤후 1:8).

17. Q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22, 23절)

A (1) 첫째,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신앙에 회의(懷疑)를 느끼는 자들에게는 비난보다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마 5:7).

(2) 둘째, 죄악의 빠진 구덩이에 자들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야고보는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하였다(약 5:20).

(3) 세째, 죄에 빠진 자들의 더러움을 경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여기서 '육체로 더럽힌 옷'은 정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단자들이 극도로 부패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한다(고후 7:1).

18. Q 유다는 본서신의 송영(頌榮)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24, 25절)

A (1) 첫째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택한 백성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시 121:7)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끊을 수 없다(롬 8:39).

(2) 둘째로, 성도들에게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거침이 없다'는 뜻을 지닌 헬라어 〈아프타이투스〉는 신약에 1회만 나타나는데, 잘 달리는 말[馬]에 대해 사용되던 용어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고(시 121:3) 날렵한 사슴같이(합 3:19), 힘센 송아지같이(말 4:2) 달려가야 할 신앙의 행로를 주파(走破)한다.

(3) 세째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백성들을 흠 없이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바울의 묘사와도 합치된다(엡 5:27).

(4) 네째로, 자기 백성들을 그 영광 앞에 즐거움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지극한 기쁨을 주신다(시 43:4).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시 100:2).

(5) 다섯째로, 유일(唯一)한 구원자로 묘사하고 있다. 영지주의에서는 최고로 선한 하나님에게서 점점 열등한 하나님이 많이 파생되어 나왔다고 가르쳤다. 이들에 의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물질계를 창조한 〈데미우르고스〉라는 가장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유다는 단호하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

(6)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시 29:2).

19. Q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25절)

A (1)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해야 한다. 이 말은 성도들이 모든 생활 중에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요 13:31, 32).

(2) 또한 하나님의 주권(主權)을 인정하는 생활을 통해 찬양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었다(대상 29:10-19).

(3) '영광'(헬, 독사)은 하나님의 빛나는 주권을, '위엄'(헬, 메갈로수네)은 주권의 크기를, '권력'(헬, 크라토스)은 주권의 힘을, '권세'(헬, 엑수시아)는 주권의 당당함을 각각 가리킨다.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해야 한다.

(4)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가로챈다면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만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 애국자로 자처했던 헤롯 아그립바 1세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죄로 충(蟲)이 먹어 죽었다(행 12:21-23).

본장의 요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3절).